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어머니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서주현(상명대학교)*

배희분(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을 매개로 어머니의 행복감과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6차(2013년), 8차년도(2015년) 조사에 모두 응답한 1,269쌍의 어머니와 아동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과 붓스트랩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녀가 만 5세 때 어머니가 인식하는 정서적 자녀가치는 2년 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겪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을 매개로 어머니 본인의 행복감은 물론 자녀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정서적 자녀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의 개선과 증진이 어머니와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행복해지려면 정서적 자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모자간 상호작용의 시간과 기회를 증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교육적 제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주제어: 어머니 행복감, 아동 행복감,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모자상호작용

I. 서론

국가의 미래와 함께 국민의 일상을 돌보기 위해 최근 정부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주요 지표가 있다면 그것은 UN과 OECD에서 해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합계출

* 제1저자: 상명대학교 조교수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조교수(heeboon@smu.ac.kr)

산율과 국민행복지수 순위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지표에 있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7년 역대 최저치인 1.05명을 기록한 바 있고, 2018년 자료가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앞선 분기별 수치로 추정해 볼 때 합계출산율 0.97명, 출생아 수 32만명으로 추계되었다(중앙일보, 2018. 07. 06일자; 한국일보 2018. 08. 22일자).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OECD 국가 최하위임은 물론이고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가 되는 것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러한 두려움 뒤에는 국민들의 낮은 행복감이 연결되어 있다. 비단 자녀를 낳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행복추구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어둡다. OECD 국가 34개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감 34위, 국민행복도 33위, 국민 생활만족도 27위라는 지표가 그것을 보여준다(김상호 외, 2016).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낮은 행복감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구조를 비롯한 거시적 관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간발달과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적 영역에서 미시적 관점의 접근도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복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Diener(1984, 2000)는 성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소득과 교육수준 같은 사회인구학적변인의 설명력은 8-15%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미국심리학회(APA)에서는 2003년에 인구변화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특별판을 발간하였고, 여기서 인구와 출산율 문제를 응용심리학의 미개척 분야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Trommsdorff, Kim, & Nauck, 2005). 이 특별판에서 가장 활발히 다루어진 주제가 바로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 VOC)”였는데, VOC 연구의 관심과 초점은 초기에는 주로 국가별 출산율 차이를 밝히는 데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가족의 신념이나 세대간 관계를 비롯하여 출산과 관련된 심리적 변수들을 확인하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Park & Cho, 2011).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자녀가치와 어머니의 행복감, 그리고 자녀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관련 변수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가치라 함은 자녀가 만족시켜 주는 부모의 욕구(권용은, 김의철, 2004)이며,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부모됨의 동기(이삼식 외, 2005)를 의미한다. 자녀가치라는 주제는 자녀를 가지게 될 때 얻는 이득과 손실,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하여 출산의도 및 희망 자녀 수 등에 작용하는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Lugo-Gil과 Tamis-LeMonda(2008)은 자녀가치 인식은 다양한 위험변인들을 중재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감을 개선하고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는 중요한 가족의 자원이라고 하였다. 자녀가치의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크게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대별된다. 정서적 가치는 자녀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

적 위안이나 가치로움을 의미하며, 도구적 가치는 자녀를 통해 갖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의미한다(권용은, 김의철, 2004). 이삼식 외(2005)에 따르면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크게 퇴색된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정서적 가치가 강화되었다. 즉 사회가 발달할수록 자녀를 노동력으로 보는 경향은 줄고, 자녀를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자녀의 발달을 지켜보는 기쁨이 부모에게 큰 가치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자녀가치가 이후 부모의 다양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정서적 가치가 도구적 가치보다 강하다는 결과가 대체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왔다(심도담, 2017; 이삼식 외, 2005; 이정민, 김세리, 이강이, 2015; 임선영, 2015; Arnold & Fawcett, 1975; Nauck, 2014).

아직까지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으며,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후속 출산의도나 기대자녀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마미정, 2007; 옥경희, 천희영, 2012). 즉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이고 정서적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후속 출산의도나 기대자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마미정, 2007; 심도담, 2017; 이정원, 2007; 정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3). 그런데 거시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출산의도나 기대자녀수 그 자체가 중요한 변수일지 모르나 미시적,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녀를 가지겠다는 의향이나 더 많은 자녀를 낳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곧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 수준을 반영하는 매우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서적 자녀가치가 어머니 본인과 나아가 자녀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출산 장려금이나 보육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본위의 저출산 대책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개별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정책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서적 자녀가치가 어머니와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연은모와 최효식(2015)은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혔고, 유정은(2016)은 정서적 자녀가치가 여성의 산후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감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언명은 검증이나 근거가 필요 없는 경험론적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특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1차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는 아동을 둘러싼 최근접 미시환경이자 자녀의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Headey, Muffels와 Wagner(2014)는 행복한 삶의 행동이나 가치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이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행복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의 행복감(김도란, 김정원, 2008; 이은희, 2012)과 자녀의 안정적 애착(김민정, 김정원, 2010)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자녀들은 만 7세로 초등학교 전이기에 해당한다. 유아기를 지나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로의 전이기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출발점이자 많은 측면에

서 변화를 겪게 되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과 역할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안겨주기도 한다(이주아, 박지은, 정혜민, 이순형, 2017). Rimm-Kaufman과 Pianta(2000)는 초등학교에서의 첫 해를 이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기(sensitive period)로 보고 이 시기에 긍정적 정서의 발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행복이라는 긍정적 정서는 정서의 확대-순환과정(Frederickson, 2001)을 통해서 이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된다(신지혜, 최혜순, 2014). 연령과 시기, 그리고 코호트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행복의 차이를 연구한 Yang(2008)은 어린 시절의 행복감이 성인이 된 후의 행복감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 아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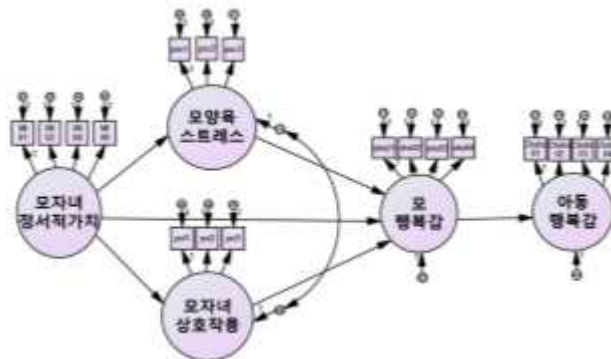
정서적 자녀가치가 과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머니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변수들을 고찰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모자 상호작용이 매개변수로 도출되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의미하며(Deater-Deckard, 2004),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가 겪는 경험이다(권수진, 2017).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양육이나 교육 문제로 겪는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앞서 언급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김영미, 김정미, 2017). 그런데 정서적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결과들(옥경희, 김미혜, 2015; 옥경희, 천희영, 2012; 이정민, 김세리, 이강이, 2015)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연은모와 최효식(2015)은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스트레스를 거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경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선아(2018)는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부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가치관의 일종으로서 인지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자녀가치는 양육스트레스라는 정서적 영역의 변수뿐만 아니라 모자상호작용이라는 행동 영역의 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모자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교류하고 함께 공유하는 행동으로 기쁨이나 흥미와 같은 공유된 정서를 형성함으로써 타인과 관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수진, 이지영, 2017). 정서적 자녀가치와 모자상호작용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었으나 몇몇 연구들에서 긍정적 자녀가치관과 양육신념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양하영, 박혜원, 2011; Crnic et al., 1983). 또한 모자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김갑순, 박윤조, 2016)와 모자간 공유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연구(배지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뇌전증 아동과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이 많을

수록 아동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임숙진, 2014)는 정서적 자녀가치와 어머니 본인 및 자녀의 행복감 간 관계에서 모자상호작용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본위의 저출산 대책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정서적 자녀가치와 행복감 등 보다 미시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의 접근을 통해 낮은 삶의 질과 저출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어머니와 자녀의 행복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모자상호작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 변인들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어머니 자신의 행복감은 물론 자녀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어머니의 행복감 사이에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매개변수로, 덧붙여 이러한 전체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최종변수로서 아동의 행복감을 상정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명확히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2개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출산율의 초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 및 교육상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간 상호작용, 어머니의 행복감, 자녀의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간 상호작용, 어머니의 행복감, 자녀의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6차년도와 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3년 6차년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에 대해 응답하였고 2015년 8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자상호작용, 어머니의 행복감, 자녀의 행복감 모두를 응답한 어머니와 자녀 총 1,26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8차년도 기준으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8세($SD=3.93$), 자녀의 평균 월령은 87.77개월($SD=1.5$)로 만 7세에 해당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1%, 여아가 48.9%였다.

2. 측정도구

가.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척도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이삼식 외(2005)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하였던 자녀가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녀가치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어머니의 행복감 및 아동의 행복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서적 자녀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측정하는 4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등이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정서적 가치를 부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나. 어머니/자녀의 행복감 척도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자녀의 행복감은 Lyubomirsky & Lepper(1999)의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총 4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위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매우 행복하지 않다/매우 행복하다’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동용 척도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장을 수정하고 4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친구들보다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친구들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친구들보다 행복한 편이에요/친구들보다 많이 행복해요.’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각각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는 .89였고, 아동의 행복감 척도는 .69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다. 모자상호작용 척도

모자상호작용은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ECLS)에서 사용된 Home Environment, Activity,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일부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번역한 후, 제 3자에 의해 역번역한 내용을 ECLS로부터 확인 후 사용한 것으로,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동안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점은 전혀 하지 않음, 2점은 1~2번, 3점은 3~6번, 4번은 매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해 주는 것, 함께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퍼즐 등 게임을 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여부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을 발췌하여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은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 α 값으로 검증하고 연구대상자의 기본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 그리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그리고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행복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검증, TLI, CFI, RMSEA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문항 묶기(parceling)를 사용하여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모형이 기각되는 오류를 제거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모자상호작용,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아동의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변인간의 관계도 .1수준에서는 유의하였다. 상관관계의 방향성을 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모자상호작용($r=.117$, $p<.01$), 어머니의 행복감($r=.241$, $p<.001$), 아동의 행복감($r=.049$, $p<.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관계($r=-.238$, $p<.001$)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또한 모자상호작용($r=-.288$, $p<.001$), 어머니의 행복감($r=-.568$, $p<.001$), 아동의 행복감($r=-.121$, $p<.01$)과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모자상호작용은 어머니($r=.274$, $p<.01$)와 아동의 행복감($r=.130$, $p<.01$)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r=.090$,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검증한 결과, 각 측정변인의 왜도는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고 첨도는 절대값이 4를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시켰다(West, Finch, & Curran, 1995). 연구 대상의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의 평균은 4.39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2.387, 모자상호작용은 2.183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7점 리커트 척도에서 5.286점, 아동의 행복감은 4점 리커트 척도에서 3.21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1>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자녀간 상호작용,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N=1269)

변인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모자 상호작용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1				
양육스트레스	-.238***	1			
모자상호작용	.117**	-.288***	1		
어머니의 행복감	.241***	-.568**	.274**	1	
아동의 행복감	.049+	-.121**	.130**	.090**	1
M	4.394	2.387	2.183	5.286	3.211
SD	.542	.677	.496	1.037	.5292
왜도	-.813	.210	.615	-.362	-.441
첨도	.697	-.068	.697	-.066	.242

+ p<.1, ** p<.01, *** p<.01

2.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모자상호작용,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가.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2>와 같다. χ^2 값은 265.182(df=128, p<.000)이었고, TLI는 .984, CFI는 .987로 모두 .90이상이었으며, RMSEA는 .029로 .05미만으로 연구모형이 분석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모형 적합도

	χ^2	TLI	CFI,	RMSEA(90%신뢰구간)		
				LO	HI	
연구모형	265.182	.984	.987	.029	.024	.034

나. 잠재변인 간 영향력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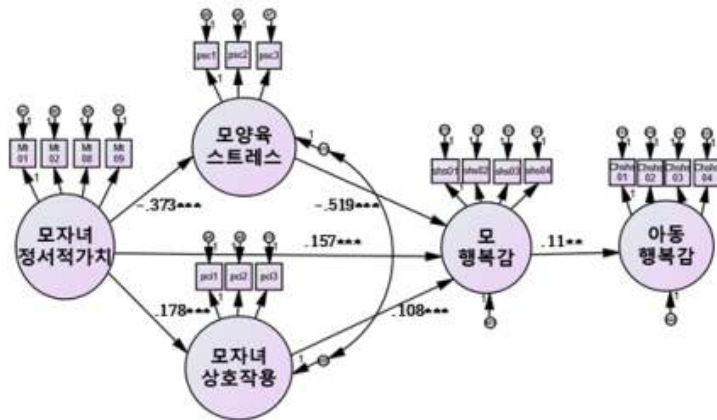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행복감이 다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는 채택되었다. 각 잠재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beta = -.373, p < .001$)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모자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 = .178, p < .001$)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어머니의 행복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beta = .157, p < .001$)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어머니 자신의 행복감도 높아졌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519, p < .001$). 이는 어머니가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행복감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모자상호작용 역시 어머니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beta = .157, p < .001$)을 미쳤고, 이는 어머니와 자녀간에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상호작용은 또한 정서적 자녀가치가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11, p < .001$)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도 높아짐을 입증하였다.

<표 3> 구조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

(N=1269)

경로			Estimate	S.E.	C.R.
어머니 정서적 자녀가치	→	양육스트레스	-.373	.05	-11.045***
어머니 정서적 자녀가치	→	모자상호작용	.178	.147	5.156***
어머니 정서적 자녀가치	→		.157	.064	5.387***
양육스트레스	→	어머니 행복감	-.519	.047	-16.702***
모자상호작용	→		.108	.015	3.862***
어머니 행복감	→	아동 행복감	.11	.016	3.197**

** $p < .01$, *** $p < .001$



[그림 2] 모형 분석 결과

잠재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어머니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beta=.157, p<.001$)도 미치고, 이와 함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모자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beta=-.213, p<.001$)을 미치는 다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감은 아동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기($\beta=.11, p<.01$) 때문에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통해 어머니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행복감은 다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beta=-.04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 (N=1269)

경로			표준화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어머니 정서적 자녀가치	→	양육스트레스	-.373***	
어머니 정서적 자녀가치	→	모자상호작용	.178***	
어머니 정서적 자녀가치	→		.157***	.213*** (.174~.254)
양육스트레스	→	어머니 행복감	-.519***	
모자상호작용	→		.108***	
어머니 행복감	→		.11**	
어머니 정서적 자녀가치		아동 행복감		.041** (.014~.07)
				총효과
				-.373***
				.178***
				.370***
				.108***
				.11**
				.041***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을 매개로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이러한 전체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와 8차년도 2개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 전체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인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아동의 행복감 간 상관관계만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방향성과 내용을 볼 때 모든 변인들 간 관계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으며, 추정된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모형 적합도 역시 우수하여 연구모형이 이론적, 실제적으로 잘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아동과 어머니의 행복감을 단지 한 두 개의 변수만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보다 다차원적으로 조망해 볼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며, 행복이라는 변수가 인지적 영역(자녀가치), 정서적 영역(양육스트레스), 행동적 영역(모자상호작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때 더 선명하게 파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현대적 의미의 행복 연구 선구자인 Diener(1984)에 따르면, 행복이란 외적이고 객관적인 조건만이 아닌 개인의 내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고, 인지적 측면만이 아닌 정서적 측면까지 아우르며, 부정적 요인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정도까지 반영하는 개념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 관련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OECD 최하위 수준의 행복지수라는 불명예 속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의 행복감과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규명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자녀가 만 5세일 때 어머니가 지니는 정서적 자녀가치는 2년 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겪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모자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어머니 본인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직접적 영향력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본인의 행복감은 물론 자녀의 행복감에도 2년이라는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관련 변수들 중에 자녀가치라는 주제와 변수는 국내 연구에서 관심이 미흡한 편이므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있었고(정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3; 옥경희, 천희영, 2012)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관계적 요인과 같은 미시적 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박수빈, 김희화, 2012)도 있었다. 일찍이 정원식(1969)은 가치관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 했으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 불행의 판단에까지 크게 관련되는 요인이기도 하다(김경신, 1998). 따라서 낮은 출산율과 행복감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선 부모교육 현장이나 학교 공교육 내에서도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자녀를 가지려 하는지 또는 왜 자녀를 가지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컨텐츠와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서적 자녀가치와 어머니 및 아동의 행복감 간 관계에 있어서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행복해하려면 정서적 자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모자간 상호작용의 시간과 기회를 증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상당한 진척이 있어왔으므로 여기서 발견된 관련 변인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와 남편의 양육참여(김세리, 조혜림, 이강이, 2017), 어머니의 자존감(권수진, 이지영, 201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부관계의 질(서주현, 김진경, 2012) 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자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공유시간과 여가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모자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적 지원과 아버지 양육참여(양하영, 박혜원, 2011),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민감성(정미라, 이방실, 권정윤, 박수경, 강은영,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신나나, 박보경, 김소영, 도현심, 2015) 등에 대한 고려와 반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처럼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스트레스와 모자상호작용의 매개를 통하여 어머니 본인의 행복감, 그리고 초등학교 전이기에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화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 및 교육상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가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연구 방법 상의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 후속 연구를 통한 연구적 의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자녀가치는 정서적, 도구적/경제적,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로 올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서적 가치만 다룸으로써 다른 유형의 자녀가치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향후 자녀가치를 더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차 양육자인 어머니만 다룸으로써 아버지쪽 변인과 영향에 대한 설명이 제외되었다. 특히 가치관은 문화지체적 현상

이 나타나는 분야로서 아직은 전통적 가치관이 어머니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본인과 자녀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수진, 이지영 (2017).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9(4), 121-142.
- 권용은,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21-226.
- 김갑순, 박운조 (2016).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27-44.
- 김경신 (1998). 가족 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 김도란, 김정원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민정, 김정원 (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4(2), 5-28.
- 김상호, 정해식, 임성은, 김성아(20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보고 2016-0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세리, 조혜림, 이강이 (2017).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한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추정. **열린부모교육연구**, 9(4), 57-74.
- 김영미, 김정미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연구: 상호작용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7(2), 169-187.
- 마미정 (2007).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빈, 김희화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0(5), 79-89.
- 배지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2), 111-125.
- 서주현, 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신나나, 박보경, 김소영, 도현심 (2015). 모-자녀간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순응/불순응 행동 간의 상호적 관계: 단기종단연구. **아동학회지**, 36(5), 75-94.
- 신지혜, 최혜숙 (2014). 유아행복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유아교육연구**, 34(1), 5-28.
- 심도담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과 후속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하영, 박혜원 (2011).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3), 99-111.
- 연은모, 최효식 (2015). 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

- 족도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0, 79-108.
- 옥경희, 김미혜 (2015). 가구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61-480.
- 옥경희, 천희영 (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유정은 (2016). 양육스트레스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자녀가치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조절효과로. 광운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 (2005).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연구보고; 2005-30(1)).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희 (2012).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안녕감 및 낙관성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김세리, 이강이 (2015). 초산모의 출산 후 4년간 자녀가치 변화궤적. **아동학회지**, 36(4), 177-192.
-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아내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아, 박지은, 정혜민, 이순형 (2017).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학업능력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상대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37(4), 453-477.
- 임선아 (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1), 49-59.
- 임선영 (2015).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진 (2014). 어머니가 인식한 학령전기 뇌전증 아동의 모아상호작용과 삶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3). 영·유아기 어머니의 원가족 양육경험과 생활만족도가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193-215.
- 정미라, 이방실, 권정윤, 박수경, 강은영 (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1(4), 715-728.
- 정원식 (1969). **정의의 교육**, 서울: 배영사.
- 중앙일보 (2018.11.28.). 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62550>
- 한겨레 (2018. 08. 22.). 출생아수 곤두박질...합계출산율 사상 첫 '0명대' 우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8804.html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rnold, F., & Fawcett, J. (1975). *The values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Honolulu: East West Population Institute, East-West Center.
- Crnic, K. A., Greenberg, M. T., Ro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ime infants. *Child Development*, 54(1), 209-217.
- Deater-Deckard, K. (2004). *Parenting str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Headey, B., Muffels, R., & Wagner, G. (2014). Parent transmit happiness along with associated values and behaviors to their children: a lifelong "happiness divide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6). 909-933.
- Lugo-Gil, J., & Tamis-LeMonda, C. S. (2008). Family resources and parenting quality: link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cross the first 3 years. *Child development*, 79(4), 1065-1150.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3).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 (ECLS-K). Retrieved April 1, 2013, from <http://nces.ed.gov/ecls/kindergarten.asp>
- Nauck, B. (2014).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Results from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urvey in eighteen areas in Asia, Africa, Europe and America.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1, 135-148.
- Park, S. M., & Cho, S. I.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second childbirth intention: focusing on value of children in Korean married wome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9(3), 292-304.
- Rimm-Kaufman, S. E., & Pianta, R. C. (2000).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491-511.

- Trommsdorff, G., Kim, U., & Nauck, B. (2005). Factors Influencing value of childre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times of social change: Analyses from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pplied Psychology*, 54(3), 313-31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논문 접수: 2019년 1월 30일

논문 심사: 2019년 2월 12일

게재 승인: 2019년 2월 25일

<ABSTRACT>

**The effect of the Mother's Emotional Value for their
Children on Happiness of Mother and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Suh, Joo Hyun(Sangmyung University)*

Bae, Hee Boon(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is for investigat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bout the effect of the mother's emotional value for their children on happiness of mother and children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The data were derived from research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The data of 1,269 Pairs of mother and their child who participated in both 6th and 8th Panel Study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and AMOS. To verify mediating effects, Bootstrapping methods were used. Results is as follows. Mother's emotional value for their children affects happiness of mother and children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This results is significant as it verifies the importance of mother's emotional value for their children and it implies the intervention or execution of program to help mothers to perceive the value of their children can improve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reduce parenting stress and this may lead to improve mother's happiness and to the end to children's happiness.

★ Key words: mother's happiness, child's happiness, mother's emotional value for their children, parenting stress, mother-child interaction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 Adolescent Counseling, Sangmyung University(heeboon@smu.ac.kr)